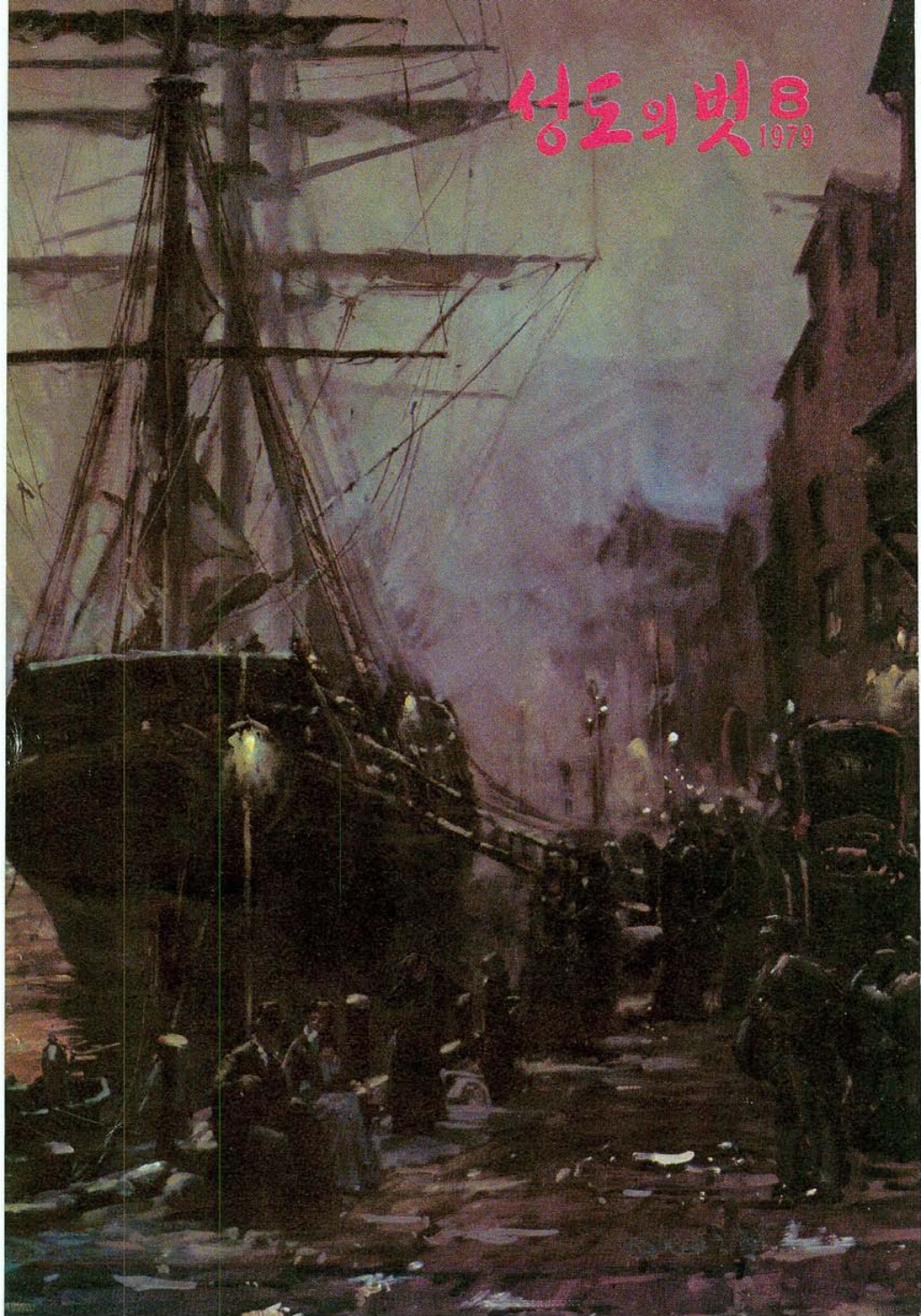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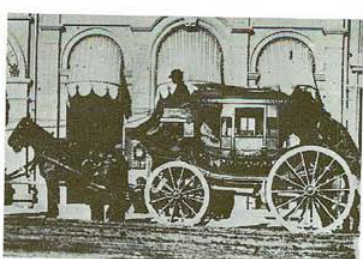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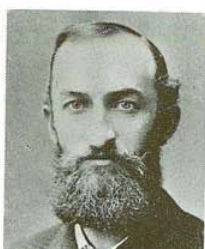


성도의 빛 8
1979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 스펜서 더블류 김블
- 엘 엘돈 태너
- 메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평의회
- 에즈라 태프트 벤슨
- 마크 이 피터슨
- 리그랜드 리차즈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고든 비 힐클리
- 토마스 에스 몬슨
- 보이드 케이 패커
- 마빈 제이 애쉬튼
- 브로스 알 맥콩키
- 엘 톰 페리
- 데이비드 비 헤이트
-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 엠 러셀 벨라드 이세
- 렉스 더 파네가
- 휴 더블류 퍼녹크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빛 1979

차 례

실 생활의 종교.....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1

물론 일지.....4

일의 고귀함.....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 7

질의 응답..... 13

열쇠와 콘택트 렌즈..... 윌리엄 지 다이어..... 17

내친구..... 21

마이클의 편지..... 마우나 레이 앨런..... 22

잘 보아 주기..... 아나벨 수메라..... 24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 루이즈 허드..... 26

부채 청산..... 28

게보를 통해 본 유전성 질환..... 29

새로운 식품 비축 방법 개발..... 31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 브로스 알 맥콩키 장로..... 32

부끄러워 하지 않고..... 테리 제이 모이어..... 37

부친의 신조..... 헨리 아이어링..... 42

지역 지도자 메시지..... 고원용..... 46

지역소식..... 48

통 권 : 제169호, 제15권 제8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9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틸
 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부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9년
 제15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인
 유진 피틸

실생활의 종교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활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종 받았읍니다. “당신의 교회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기에 당신은 개인의 사업과 사회적 이해 관계를 개의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행하고 어느 곳 이든지 가라는 대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에 답할 때 나는 으레히 교회의 일은 신성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욱 보람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종교에 대하여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읍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이 복음이 참됨을 스스로 알게 되는 방법과 복음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종교에는 진리를 구하는 모든 정

직한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끌게 하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는 이처럼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며 전세계에 걸쳐 수많은 개종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인간의 주요 목적은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찾아 최선의 생활을 해 나가고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문제점과 시련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중요한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종교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가르침, 즉 계명을 주시고는 본질적인 면에서 불 때



그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계명에 순종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악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 : 10)

우리는 종교 또는 복음을 통해서 계명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를 위해 무엇을 마련해 두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친절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훌륭한 시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속성을 갖추지 못함은, 복음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영원한 존재이며,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영으로 살았으며, 죽은 후에는 부활하여 육신 곧 둘째 지체(아브라함서3:26 참조)를 지킨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처소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김을 받기를 원하는가를 스스로 택하게 됩니다.

복음의 원리의 하나로 가족은 영원한 단위의 하나로 계속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고 받는 남편과 아내의 거룩한 신전에서 집행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부부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무엇보다 큰 위안을 받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실생활의 종교는 회원들의 영적인 복지와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복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회원이 부족한 때를 대비하여 일용품을 비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것을 비축한 창고에서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한 전세계의 수많은 이재민에게 침구와 가구를 비롯해서 식품과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용품을 꺼내 보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룩한 명을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활동 범위가 다양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야영 활동, 스포츠, 연극, 무용 및 음악 축제 등을 포함한 건전한 오락과 활동을 제공합니다. 회원들에게는 수예와 가사 솜씨와 같은 모든 분야의 기예를 키워 나가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적당한 식사와 운동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라는 권고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고 건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취하지 못하게 권고해 줍니다. 우리는 미덕과 순결을 사랑하며, 오늘날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부도덕과 도덕적 부패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음란, 유산, 동성애 및 기타 성도착 행위로부터 이 세상을 구해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임을 믿으며, 학교를 짓고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

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 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리니.”(교성 88 : 78-79)

우리는 또한 주님의 이러한 권고를 받습니다.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지체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 지리니, 그리하면 부한 자가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니라.”(교성 6 : 7)

우리가 기도로 주님에게 간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환히 펼쳐 보여질 것이며, 우리는 진리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살아 계신 예언자와 함께 하는 참으로 큰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읽고 받아들이며, 예언자들이 인간 세계에 생존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할 때 오는 재난을 인간에게 가르치고 경고해 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대변인이 오늘날 우리 사이에 생존하며,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모두가 생활하도록 권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시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

어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대속의 희생을 치르게 하셨음을 아는 일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여러 등급의 영광이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 말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바 그들의 본질과 속성을, 그리고 그들이 신체와 지체와 감정을 지니고 있는 영화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두 분이 살아 계시며 별개의 개체이며,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심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두 분은 우리에게 가르침 즉 생활 방법을 계시하는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권과 가장 위대한 형제애로 인도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매님을 위한 상호부조회가 있는데, 이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위대한 봉사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초등협회도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있고, 누구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회원 개개인의 신앙과 행위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적인 간증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제자들에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 : 70)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되풀이 할 수 있습니다. *

수화로 복음을 공부함

스티븐 에이 윌프

나의 선교사 시절의 가장 훌륭한 동반자로 노울린 벨거슨 장로가 있었습니다. 벨거슨 장로가 무뚝뚝한지 유머 기질이 없는 건지는 확실치 않았으나, 그는 내성적이었으며, 사람들은 대개 그를 조용하고 신중한 청년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훌륭한 팀을 이루었으며, 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고 만족감을 맛보았고, 과거에 경험한 일을 서

로 이야기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그가 우연히 한 말 중에서 나의 뇌리에서 영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벨거슨 장로의 완전한 헌신을 보여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원 수가 적은 어느 교회에 다녔다는데, 그곳에는 병어리로 말도 못하고 가끔 참석하는 어느 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 부인은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뜻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선교사와의 토론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기 전에 여섯 개의 선교사 공과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선교 규칙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수화만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병어리의 수화로 말할 수 있



는 선교사가 없었으므로, 누구도 그 부인을 가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벨저슨 장로는 그 부인을 만나 그녀가 기이한 업적을 읽고 개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 부인으로부터 알파벳의 수화 표시가 적힌 카드를 받았습니다.

벨저슨 장로는 머리가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으나, 주님의 일을 하기를 몹시 열망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기 아파야트로 가서 알파벳의 각 부호 표시를 의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는 열심히 여섯 시간 동안 손가락 철자를 사용하여 첫번째 복음 토론 공과를 모두 그 부인에게 가르쳤으며, 그 부인에게 각 낱말을 써 주고, 그 부인이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을 참을성 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벨저슨 장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받는 것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서관에 찾아가, 수화에 관한 책을 빌려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는 복음 토론을 점점 쉽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정상적으로 말로 하여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밖에 시간이 더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침례를 받았고, 지금도 수화로 벨저슨 장로를 위해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나는 벨저슨 장로의 모범을 생각해 보며, 것처럼 훌륭한 동반자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내 도움을 유용하게 받아들였을 형제나 자매들을 얼마나 많이 지나쳐 버렸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

학교 교사인 스티븐 에이 윌프 형제는 알래스카 주의 앵커리지 선교부에 있는 호머 지부에서 청남

회장과 제사 정원회 교문으로 일하고 있다. 노을린 벨저슨 형제는 유타주 혼련원에서 농아 교사로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수화반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그는 귀머거리인데”

네드 비 컵스

몇 년 전에, 감독단 제2보좌로 있을 때, 집사 정원회에서 어느 형제를 새로운 회장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했습니다. 감독은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정원회의 각 소년에 대하여 생각해 본 뒤에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결국 세 명의 합당한 13세의 소년들 중에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 소년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하려고 했으나, 확신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원회에 있는 각 소년을 재평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처음에는 그대로 지나쳤던 케빈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케빈을 안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그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각 정원회 회원이 그의 친구이며 그의 가족도 그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머거리인데”하고 나는 혼자 말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어리라는 극복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그를 고립시키고, 교회 일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말하는 기회, 다시 말

해서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의 말하는 능력은 향상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지도 능력은 그것을 키울 기회도 받지 못한 채 영영 잠들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집사 정원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케빈을 추천하는 결정에 대하여 기도했을 때, 나는 강한 확신을 얻었으며 이를 감독님과 논의했습니다. 감독님도 그 선택을 좋게 생각했으며, 그 점을 케빈의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케빈의 부모님도 기뻐하시며 아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케빈은 부름을 받고 열심히 잘해 보겠다는 소망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케빈과 그의 가족, 감독, 교사, 고문 및 워드 가족들 사이에 밀접하고도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7년 동안에, 훌륭한 일이 케빈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력을 쌓았으며, 권능을 주고, 말씀을 하고, 봉사하는 일을 도왔으며, 성찬 축복도 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참으로 큰 훌륭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워드 소년 소프트볼 팀에 입단한 해에, 그 팀은 스테이크와 지구 및 지역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역의 체육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게임에서, 케빈은 워드 회원들이 그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나, 그는 참으로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소속감과 자신이 무엇인가 공헌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케빈이 집사 정원회의 부름을 받은지 수년 후에, 나는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케빈에게 선교사에 대하여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대

학 과정을 마치기를 원했으며, 자신의 처지로는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고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러다가 케빈의 마지막 아론 신권 활동에서, 우리가 캠프파이어 주위에 둘러앉아 간증 모임을 갖고 있을 때, 케빈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으며, 감독이 부탁한 데로 행하고 선교사 부름에 대하여 기도하겠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응답을 받았으며 나는 그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케빈은 나의 집에 들러,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으로부터 방금 받은 선교사 부름 통지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감격했고,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부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비행장에서 그는 선교 지역으로 떠나며, 웃음을 띤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간단히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대부분의 우리가 현재의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둬으로써 그대로 불구자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케빈의 부모와 친구와 지도자와 동료 회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케빈을 그들과 똑같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케빈은 우리가 육신의 혀만으로 말하지 않으며, 육신의 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며,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말하고, 보고, 듣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불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나 그의 사업이나 그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기쁨에서 소외될 수는 없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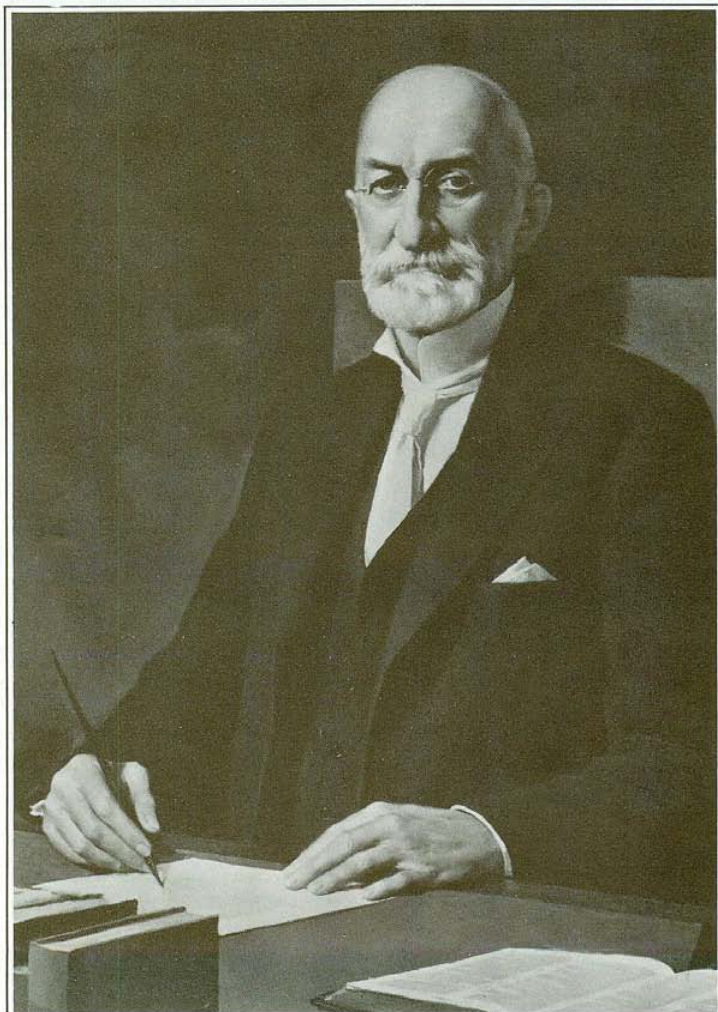
일의 고귀함

히버 제이 그랜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7대 대관장

교회의 히버 제이 그랜트 제 7대 대관장은 1856년 11월 22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제디다이어 모간과 레이철 릿지웨이 아이빈스 그랜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2년 10월 16일에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1918년 11월 23일에는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되었다.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는 많은 귀중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미덕을 가르치는 데 본보기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기사는 1899





년에 임프르브먼트 이라에 실린 것으로 그랜트 대관장이 하신 몇 마디 말씀도 들어 있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능력껏 하는 일의 중요성과 그렇게 일할 때는 결코 실망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 속에 심어 주려고 늘 노력해 왔다.

마치오니스트 램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청년에게 있어서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겸양해 하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일은 없다. 그러한 겸양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무기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신에게 불가능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과 장점을 갖고 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찌로다”(역대상 22:16)

“일상 생활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으뜸가는 지혜이다.”

“부름 잃는 사람은 많은 것을 잃고, 친구를 잃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으나, 영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다.”(세르반테스, 스페인 작가, 1547-1616)

“젊은이여! 꿈을 꾸라! 고귀하며 남아다운 꿈을 꾸라. 그러면 그 꿈이 그대의 예언자가 되리라. (블워 리튼 경 영국 소설가 극작가 1803-1873)

나는 인생의 경기장에서 오늘의 의무를 최선의 능력을 다하여 행하는 것보다 더욱 귀중한 것은 이제껏 찾아보지 못했으며, 청년들이 이와 같이 행할 때 그들은 내일을 위해 더욱 잘 준비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파고 앤드 컴퍼니 은행에서 부기 장부를 적는 사람이 나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는 월급으로 150불을 받는다고 했다, 나는 곧 그가 일요일을 빼고 하루에 6불씩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내게는 큰 액수로 생각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위에서 인용한 블워 리튼경의 감동적인 말씀을 읽지 못했으나, 그래도 부기 계원이 되어 파고 앤드 컴퍼니에서 일하겠다는 꿈을 꾸



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 감정이 상한 것은 아니며, 선의의 농담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래도 나는 마음속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나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나는 그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을 위해 글씨체를 복사하여 대학에서 글씨 교본과 부기의 선생이 되기로 결심했다. 목적과 “일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젊은이의 사전에는 실패란 말이 없다.”라는 리튼경의 말에 공감을 느끼고 나는 여가를 활용하여 글씨 교본을 연습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여러 해를 계속하고 나니 “세상에서 가장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고, 즉시 데저렛 대학의 부기과에 등록하여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월급으로 생각했던 돈을 언젠가는 나도 벌여 보리라 하고 꿈꾸었다.

나는 다시 한번 불위 리튼경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인용해 보겠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목적이며 성취하는 힘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사무엘 스마일(스코틀랜드 저자, 1812—1904)은 이렇게 말했다. “목적은 계란과 같아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썩어버리게 된다.”

리튼경은 젊은이가 고귀하며 남아다운 꿈을 펼치려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실현시켜 썩지 않게 해야 함을 확실히 인정했다. 부기 계원이 되기로 결심한 나는 곧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지금도 학교 친구들이 놀려 대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한 아이는 내 책을 보다가 “이게 뭐니? 암탁장을 그린거니?” 하고 묻고, “잉크병에 번개가 친 모양이지?” 하는 학

그 결과로 몇 년 후에 나는 부기 계원과 서기로 보험 회사에 취직했다. 15세의 나이로 나는 제법 글을 잘 썼으며, 당시 내가 맡은 일자리만 해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이었으나, 나는 완전히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되기를 계속해서 꿈꾸었다. 나는 에이 더블류 화이트 앤드 컴퍼니 은행 앞에서 일했는데 바쁘지 않을 때는 자청해서 은행 업무를 도왔다. 그것은 내가 돈을 더받으려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일하며 배우겠다는 소망으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떠한 일이든지 하고자 했다.

은행의 부기 계원인 모프씨는 글씨를 매우 잘 썼으며, 유능한 명필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나를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 주었다. 나는 매우 잘 쓸 줄 알게 되었으므로 근무 시간 외에 카드나 초청장을 쓰거나, 지도를 그린다든가 해서 은행에서 받는 월급 보다 더 많은 돈을 번 때도 종종 있었다. 몇 해 후에, 테리트리얼 페어에서 나는 유

타에서 가장 글씨를 잘 쓴다 하여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내가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대학에서 서예와 부기과의 교수 자리가 비게 되어, 12세인가 13세 때에, 훗날 이 과목을 가르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게 되었다. 나는 그 일자리에 응모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하여 완수 되었다.

어떤 면에서든 향상하기 위해 일하는 젊은이는 자신에게 진실해야 하며, 스스로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결심한다면, 자신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즐거운 마음과 굳은 결의로 일해야 한다. 나는 독자의 마음속에 이 교훈을 이 이상 강하게 새겨 줄 수 없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에 관계된 결심을 하고, 그것을 한번도 성취하지 못하면, 약속의 이행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 버리는 버릇이 붙게 된다. 젊은이는 레어티즈가 집을 떠날 때 부친의 입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들려 준 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 그러면, 자면 밤이 낮을 따르듯이 넌 남에게도 반드시 충실한 사람이 된다”(햄릿, 제 1막, 제 3장에서 플로니우스가 한 말)

다음에 인용하는 전국 제 5차 독자 연합회의 강의 내용은 나의 학창 시절에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나는 한번도 이것을 잊은 적이 없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성품에는 행복이나 비통에 대한 가능성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특성은 없습니다. 기업인에게 있어서 인간의 성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력을 당당히 펼치기 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 거미줄 같은 장벽이 됩니다. 역경은 배를 채우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망을 안겨 주며, 위대한 결심을 한 사람에게는 미소를 안겨다 줍니다. 우리 인류와 온 자연의 이야기는 굳은 의지와 인내와 참을성있는 노고에 놀라운 기적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에 길이 칭송 받는 전사인 태어레인(1336~1405)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의 무기의 위력은 동방의 모든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으며, 발길이 닿는 곳마다 승리를 쟁취한 그는 어느 때인가 한 마리의 곤충에게서 인내의 교훈을 배워 그후의 그의 인품과 성공에 큰 영향을 받았읍니다.

“당시 그의 측근자가 들려주는 바에 의하면, 그는 적군의 추격을 받고 어느 폐허에서 몸을 숨기고 혼자 명상에 잠겨 있게 되었는데, 옥수수 한알을 옮기려고 애써 끌어당기는 재미 한 마리를 보았읍니다. 개미는 무거운 짐을 이겨 내지 못해, 뒷걸음질을 하면서 물러당기며 어떤 지점에 이르기 위해 예순 아홉 번씩이나 헛수고만 하더니, 일흔번째에 가서 옥수수 알을 옮기는 데 성공하였읍니다. 그 훌륭한 영웅은 알날의 승리로 가슴 부풀어 의기양양해서 그 곳을 떠났읍니다.

“이 작은 일이 준 교훈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읍니다. 굴욕적인 패배로 남은 생애를 두려움과 실망으로 끝을 맺는 수많은 경우에도 인내로 이겨 나갔던들 승리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심은 거의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웨리단(1751~1816, 애란의 극작가이며 의회 연설가)도 처음에는 연설 도중에 겁에 질려 주저앉고는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굴욕감을 느낀 그는 어느 날 친구에게 나의 내면에 들어 있는 힘을 이

끝어 내야 하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일어나서 얼굴에 빛을 내어 완전한 웅변을 구사했습니다. 참된 도덕적 용기가 솟아났던 것입니다. 어느 윤리론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정신력을 기르십시오. 마음속에 의심을 품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적이 됩니다. 우리의 높은 목표를 추구해 나감에 있어, 가장 가벼운 경우라도 절대로 소홀히 넘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약명 높은 잘못을 저지르기 보다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데서 인간은 더욱 훌륭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항상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른 것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어떠한 경험을 하든지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한 마리 개미가 보여준 것처럼 끈질기게 해낼 수 없다는 느낌을 가끔 받게 되는 나의 인생에 좌우명이 되었다.

19세때 나는 웰즈 파고 앤드 컴퍼니 은행 대리인 헨리 워즈워드씨의 보험 증권 서기로 일하며 부기를 했다. 나는 시간제로 일했다. 나는 은행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대리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것이었다. 화이트씨의 은행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했으며, 자진해서 많은 은행 서류를 정리했고, 또한 워즈워드씨가 직접 행하여 온 샌디 스멜팅 회사의 부기도 맡아 했다.

앞서 인용한 역대상의 말씀이 진실됨을 강조하기 위해, 나는 내 행동이 워즈워드씨를 흡족하게 하여 그는 나를 웰즈 파고 앤드 컴퍼니 은행의 수금원으로 고용하여, 보험 업무로 받는 75불의

정규 급료 외에, 이 일에 대한 대가로 매달 20불을 주었다. 이와 같이 나는 웰즈 파고 앤드 컴퍼니에서 일하게 되어, 과거에 내가 꿈꾼 일이 실현되었다.

실달 그믐날이 되어, 나는 사무실에 매우 늦게까지 남아 연하장을 적고 있었다. 그때 워즈워드씨가 들어와 일을 잘 해낸다고 기분 좋게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보수도 받지 않고 웰디 스멜팅 회사의 부기를 해 온 것을 말하고, 여러 가지 칭찬을 해주어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100불짜리 수표를 주었는데, 그것은 시간외에 일한 것을 두갑절로 보상해 준 것이었다. 그때 내가 고용주의 신임과 호의를 받아 느낀 만족감은 100불 짜리 수표를 두번이나 받는 것보다 더욱 값진 것이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든 직장에서 일하려는 젊은이는 자신이 일한 대가로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따지지 말고, 오직 일하고 배워 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임한다면, 인생의 경기장에서 꼭 성공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1890년에서 1891년 사이에, 우리 지방에서는 사탕 무우 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열심히 일했다. 1891년의 경제 공황으로 주식을 사들인 많은 사람들이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나는 산업 육성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동부로 파견되었다. 뉴욕과 하트포드에서 필요한 기금 확보에 실패한 나는 곧 이어 샌프란시스코로 파견되어, 그곳의 웰즈 파고 앤드 컴퍼니 은행의 지배인인 헨리 워즈워드씨로부터 10만불을 제공받았다. 그것은 그가 솔트레이크시티의 웰즈 파고 앤드 컴퍼니 은행 대리인 일했을 때 내가 그 밑에서 충실히 일했던 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어디서나 자금이 모자라는 그 시절에 거액을 빌려 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보험 업무를 시작했을 때, 내신원 보증서에 서명한 한 사람은 호레이스 에스 엘드리지 형제였으며, 보증서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필요했으므로, 그는 나에게 윌리엄 에이치 후퍼 주임에게 서명을 부탁하라고 했다. 나는 주임을 잘 알지 못하므로, 그가 보증인의 한 사람이 되어 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엘드리지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 주임에게 서명해 줄 것을 청해 보았으나, 그는 한 마디로 거절했다. 나는 곧장 내 사무실로 걸어와서 일이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내가 방금 주임을 만나 보았던 데저렛 네이셔널 은행에서 온 어떤 사람과 만나 그를 찾으며 후퍼씨가 나를 보겠다고 말했다. 나는 방금 주임을 만났고 이야기도 다 끝났으니 더 이상 만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떠난 뒤에 주임이 그랬으니 다시 가 보자고 고집하므로 나는 결국 다시 가서 그를 만나 보기로 결정했다.

은행에 도착하니, 주임은 “젊은이, 그 보증서를 이리 주게”하고 말했다. 그는 서명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몇 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나는 자네가 누군지 몰랐네. 나는 이제까지 거리에서도 자네를 여러 번 만났고,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자네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다네. 자네가 여기서 나간 후에, 자네가 누군가를 물어보고 나서야 자네가 제디다이어 엠 그랜트 형제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자네를 부른 것이네, 자네의 신원 보증서에 서명하게 되어 기쁘네. 제디다이어 형제님에게 아들이 있는 줄 알았으면 얼마든지 기꺼이 보증서에 서명을 해 주었을텐데. 정말 반갑네.”

그는 나의 부친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부친에 대한 주임의 사랑과 신뢰가 역력히 나타났다. 주임이 내게 들려 준 말을 듣고 나는 그렇게 훌륭하신 부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며, 후퍼 주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남기게 될 기록에 의하여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하며 일해야 하겠다는 강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후퍼 주임의 행위는 훌륭한 부친을 모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부친은 내가 태어난지 9일만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난 후에 나는 부친의 정직성과 성실성의 은덕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말한 사건은 23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이후 부친의 정직성과 성실성으로 인해서 나는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 같은 건물 안에 있었던 에이더블류 화이트 앤드 컴퍼니와 웰즈 파고 앤드 컴퍼니에서 부기 계원과 금전 출납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은행 업무를 배웠다. 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자이언스 세이빙스 은행과 신용 금고 회사의 지배인이 유럽의 선교부로서 부재 중에 지배인 자리 자리를 맡았었다. 내가 화이트와 웰즈 파고 은행에서 여가를 회생하지 않으려 했다면, 나는 자이언스 세이빙스 은행에서 자리를 받아들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은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생활을 하여, 자기 자신과 자손들에게 명예와 축복이 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한 빛이 되는 것을 절대적인 의무로 여기고, 또 그것이 모든 말일성도의 가장 귀중한 야망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 되는 것이다.



웨리 다운닝 일곱 자녀의 어머니이며 월
밍톤 델라웨어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임원

내가 어떤 직책을 맡을 적임자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 직책에 다른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감정이 상하고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나 도 과거에 그런 문제를 여러 번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내가 받게 되어 기쁩니다. 나도 여러 해 동안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는 것이 말일성도 여성으로서 최대의 성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청년 회장으로 부름받

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다방면에서 봉사했습니다. 상호부조회 보좌로도 여러 번 일했으나, 회장직은 한번도 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일테지” 그런데 다음번에는 네명의 취학 전의 자녀가 있는 자매가 회장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나이가 어려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겠지.” 그런데 다음번 회장은 더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와드에서 5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다음에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다시 자리가 바뀌게 되어 이번만은 어느 모로 보나 내가 유년 주일학교 회장직에서 해임되고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리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내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독은 나에게 “유년 주일학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했으나 그러면서 나에게서 상호부조회 자리를 맡겨 놀라게 해주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계획안도 짜 보고 누구를 보좌로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독과 접견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유년 주일학교에 대해서 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감독은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남편이 부름은 주님께에서 오는 것이라고 부드럽게 대답하자,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내 능력을 인정치 않으시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도 참으로 고통스러웠으나, 그때 발생한 어떤 일

로 나는 전혀 느껴 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도 충격을 받았고 나의 거부적인 감정에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나의 태도를 바꾸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나는 결국 벌써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선택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찾거나, 실망감을 억누르려 하기에 앞서, 주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감정을 고백하고 전보다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가 배울 준비를 하자, 주님은 내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몇 주일에 걸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차로 나의 이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며 주님과 왕국에서의 부름의 참된 본질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나는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름은 보상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의 장이 되어 “순조롭게” 일해 나갈 수 없다면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름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성직자는 의의 성직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부름의 “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와드에는 거룩한 방문 교사도 있으며, 합창단원도 많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름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치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사 55 : 8) 때로 우리는 수년간의 일을 뒤돌아 보면 우리 생활에 나타난 주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이끌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알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그처럼 미묘한 균형을 이루며 자연계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믿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눅 1 : 38)라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더욱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인 듀에인 로이드 형제는 “자신의 부름을 자기 자신만큼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부름을 부러워하는 생각을 고치는 수단으로 현재 맡고 있는 부름에 갑절로 노력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태도를 바꾸어 당신의 부름이 교회내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개의 비유를 말하고 겸손의 중요성에 관하여 많은 종교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만심을 내세우지 않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시기하지 않을 때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리하이의 여러 아들 중의 한 사람인 야곱은 이러한 생각을 한 마디로 적절하게 요약했

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주께 권고, 하려 하지 말고, 주의 훈계를 따를지니 보라 너희가 이미 스스로 알고 있으려니와 주는 지혜와 공의와 크신 자비로써 주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니라”(야4 : 10)

내가 진실로 당신과 함께 하고자 원하는 생각과 경험은 당신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부드러워져,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베푸는 봉사가 당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제 1보좌

어디서 그리고 어느 경우에 우리는 교회에서 지지를 해야하며, 또 지지하지 않아야 할 때는 언제, 어디서입니까?

모 든 교회 회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조직의 역원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이 거하는 와

드나 지부의 역원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하지 않는 와드나 지부의 역원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아도 되나, 자신이 하고 싶다면 지지하는데 아무런 반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자신이 속한 스테이크와 지방부나 선교부의 역원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스테이크, 지방부 또는 선교부내에서 갖는 모임에서 지지 행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러한 역원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하지 않는 스테이크나 지방부 또는 선교부의 역원을 위해서는 지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지하고 싶다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교회에서 갖는 어떠한 모임에서나 총관리 역원의 명단이 지지 받기 위해 발표될 때 그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교회의 직책에 부름받아 자신이 회원들의 지지를 받게 될 때, 그 부름에 대하여 자신을 지지한다는 것을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교회 직책에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 손을 들어 지지하는 것은 그 부름에서 주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지지한다는 우리 자신의 다짐을 표하는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다짐과 성약과 지지의 본질을 동일시켰습니다. 총회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를 교회의 예언자와 계시자로 지지할 때,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에 전혀 강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지지하는 역원에 대하여 아무런 모호한 점이나 조건없이 여러분의 전적인 성실과 지원을 보낸다는 것을 주님께 엄숙히 성

약하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70년 4월, 103페이지)

우리는 자유로이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으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충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 회원들이 반대하면 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말일성도를 관리할 수 없으며, 더우기 임명하고 선택하는 일은 신권 지도자의 권한이므로 교회 회원은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신권 지도자는 선택을 하며, 그러면 대회에 참석한 말일성도들은 손을 들어 지지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이유를 관리자 앞에서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반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서는 내가 임명될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혹은 어떤 개인적인 불화나 감정 때문에 거수로 반대할 권리는 없고 그가 죄를 짓고, 교회의 율법을 범하여 부름을 받을 직책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반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수 지지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대회 보고, 1919년 6월, 92페이지)

회원을 교회 직책에 부르는 권리는 거룩한 영감의 지시를 받은 관리 신권 직원에게 있습니다. 지지하는 권리는 교회의 각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하나님이 임명하고, 인간이 지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이 원칙을 규명했습니다.

“관리 역원이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지명’하거나 선택하거나,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지지를, 정치적 용어로는 ‘선출’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는 ‘부르거나’ ‘지명’하는 능력은 없으며 단지 지지 또는 정치적 용어로 ‘선출’하는 원리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관리 역원이 어떤 사람을 지지할 것을 교회에 건의할 때는 회중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능력은 손을 들어 지지하든지 또는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투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나 혹은 어떤 회원도 다른 사람을 직책에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관리 역원만의 유일한 권능이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물에 관한 여하한 토론이나, 모든 추천과 인품이나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와 같은 모임에서는 전혀 논의될 수 없습니다.(대회 보고, 1940년 28—29페이지)

교회의 각종 행정면에서 관리 역원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선택하심을 나타내 주며, 그 후에 우리는 주님께 지지를 표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해롤드 비리 대관장이 주님의 선택받은 예언자요, 선견자이며 계시자로 부름받을 때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리 대관장님이 혼란이나 비난이 뒤끓는 투표에 의해 어떤 위원회나 혹은 대회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셨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성도의 벗 1973년 7월호, 2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 역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영이 증거한 올바른 원칙에 따라 지지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

열쇠와 콘택트렌즈와 기도의 목적

윌리암 지 다이어

할 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가족이 모두 함께 나들이를 나가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조그만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아무리해도 자동차 열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른과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할머니까지 나서서 구석 구석 찾아 보았으나, 열쇠는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는 풀이 죽어 집에 눌러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자리를 뜨시며 침실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몇분 안되어 한 아이가 우연히 열쇠를 찾아냈다.

바로 웅단 한 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신나게 야외로 달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할머니는 왜 열쇠를 찾지 않고 침실로 들어 가셨어요?” “할머니의 대답에 다섯 명의 어린 아이들은 귀가 솔깃해졌다. “우리가 야외로 나가지 못하면 모두 얼마나 실망이 크겠니? 그래서 열쇠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려 갔단다. 그러면 우리가 열쇠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거다.”

그런 일이 있는 며칠 후에 다른 식구

에게 또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십대의 딸 아이가 콘택트 렌즈를 양쪽 다 잃은 것이었다. 딸 아이는 나는 정말 멍청한 애야 하고 자기 변명을 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식구들도 마음 속으로 동정했다. 또 다시 모든 식구가 황급히 콘택트 렌즈를 살살이 찾아 보았다. 나도 함께 찾아 보다가 딸 아이의 방을 지나치게 되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발, 콘택트 렌즈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온 식구가 여러 시간동안 애써 찾아 보았으나 콘택트 렌즈는 영 나타나지 않았다. 딸 아이는 난처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콘택트 렌즈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열쇠 찾는 데 도움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렌즈는 찾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십대의 소녀는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면하는 큰 문제점

의 하나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가 하면, 무시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나 열쇠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과연 하나님은 할머니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십대 소녀의 기도는 들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주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콘택트 렌즈를 찾는 것은 단지 우연스러운 일로, 기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전에서 찾아 보아야 한다. 구세주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다. 구세주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 6:9-13)고 하셨다.

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경의를 표해야 한다.

나.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의 한 부분에 넣지 않고 있다. 열쇠나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을 때라도, 우리는 흔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 즉 지금 곧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가 많다. 보다 중요한 사항에 관계된 경우 즉,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든가, 자녀가 집을 떠나 있든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라도,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의 기도에 구

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그들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간구하기를 두려워한다. 우리 자신의 소망을 제쳐 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도록 간구하는 데에는 큰 신앙과 인품의 성숙이 필요하다. 콘택트 렌즈와 같은 사소한 경우에도, 주님은 그것을 찾지 못하는데서 얻게 되는 교훈을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즉시 들어 주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주님이 사물을 보시는 견지는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잃어버린 물건과 같은 사소한 것도 기도해야 하는가? 물론 그렇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마 10:29-30 참조)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 두려움, 슬픔, 희망, 야망 및 문제점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물몬경에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말을 듣는다. 물몬경의 백성들은 구세주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일의 관심사를 나타내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그 권고의 말씀은 사치품이나 필요없는 물건이나, 현재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을 때라도, 기본 규칙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같이 용서하는 문제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기도에 뒤이어 곧 구세주께서 다시 용서의 문제를 다시 강조하실 만큼 중요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생활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생활이 질서 있게 되도록 간구해야 한다. 구세주께서 우리가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일로 용서의 문제를 지적 해주신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혹케 하실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으로 이끄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간구의 목적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며”(예수 그리스도 244페이지)

말일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충고를 찾아 보면, 교리와 성약에서 기도에 관한 많은 구절이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적대자의 힘을 이겨낼 수 있고,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사소한 일상적인 일 즉 열쇠나 콘택트 렌즈를 잃은 것과 같은 사실만을 간구하고 좀더 비중이 큰 일은 무시하는 수가 있다. 분명히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서도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또

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

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인정해야 한다. 그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중요한 모든 것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위대성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때로는 잃어버린 콘택트 렌즈에 대하여 주님께 폐를 끼치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참새 한 마리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아시니, 결코 진실한 기도를 듣지 못하실 정도로 바쁘실리는 없다.

하나님은 특히 어떤 사람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더 잘 들어 주시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대 소녀 보다는 할머니의 기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할머니는 오랫동안 헌신과 봉사의 생활을 해 왔고, 십대의 소녀 딸은 이제 막 시작해 나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편애하지 않으신다.

모든 인간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영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주께서 기도할 때에 의식하며, 중언부언하고 자랑과 허풍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비난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구한 죄인의 겸허한 기도에도 오�히려 감명을 받으셨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너는 결손하다.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교성 112 : 10) 물론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겹거나 회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이교도까지라도 기억하시리니,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함이라.”(니이 26 : 33)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도 우연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할머니가 기도하든 안하든 열쇠가 발견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물론 확실하게 가능한 일이다. 좋은 일은 꼭 기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도 우연히 또는 부지런히 구하거나 노력해서 일어나게 된다. 예수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고 하였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행운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0-21)는 말씀을 듣고 있다. 어떤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율법에 따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도 관련되지 않은 어떤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골프 선수인 아놀드 파머씨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구멍에 골프 공을 맞춰 넣어 경기에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한 관중이 “아놀드씨는 참 행운아 이시군요.”하고 말했다.

그 말에 파머씨는 이렇게 받아 넘겼다. “연습을 더 많이 하면 더 행운아가 되니 재미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습도 하지 않고 멀리 있는 구멍에 골프 공을 넣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그럴리는 없다. 축복에는 야고보가 말한대로 기도 이외의 더 많은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 : 7)

그러나, 경전에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심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요구를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주님은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성 59 : 21)고 하셨다. 주님의 손은 만사에 미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이해해야 하는가?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효과적인 연결을 맺는 것 중의 하나가 된다. 우리는 기도를 현명하게 올바른 정성으로 활용하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갖고 계시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 생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또한 간구해야 한다.

※

부채 청산

1970년의 어느날 밤 15세의 단·엑크린드는 스위스의 주리히에 있는 선교본부의 벨을 울렸다. 엠·엘머·크리스찬슨 선교부장이 문을 열자, 단은 자기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단과 그의 가족은 아프리카의 콩고에 살았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부모는 18년간 콩고에서 신교의 선교사로 봉사해 왔다. 그곳에서 모두 일곱 자녀가 태어났다. 단의 부모는 단이 남 아프리카에서의 휴가 때 다른 교회에 흥미를 느껴 침례받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언짢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단은 새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부모가 동의하여 단은 침례를 받았다.

주리히의 선교부장이 콩고의 모든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은 크리스찬슨 선교부장에게 편지를 써 공부할 책을 좀 보내 달라고 했다. 단은 미국 가는 길에 주리히에 들르자고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크리스찬슨 부장에게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었다.

엑크린드 가족이 크리스찬슨 자매와 이야기하는 동안 단은 크리스찬슨 부장의 사무실로 들어 갔다. 거기서 그들은 함께 앉아서 단의 몇가지 의문에 대하여 조용히 토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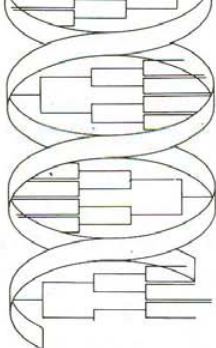
일어서서 나오기 전에, 단은 지갑을 꺼내서 5불짜리 미국돈을 꺼냈다. 그는 교회 회원이 된 후, 45불을 벌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4불 50센트의 십일조를 빚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나머지 돈으로 50센트를 현금하고 싶었다.

크리스찬슨 부장이 금식 현금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단은 그 50센트를 금식 현금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선교부장은 영수증을 써서 소년에게 주었다. 그는 그것을 주의깊게 읽어 보고는 지갑에 넣었다.

단은 눈을 반짝이며 선교부 사무실을 떠나 가족에게로 갔다. 마침내 단은 자기가 사랑하게 된 교회의 참된 회원이었다고 느꼈다. *



계보를 통해본 유전성 질환



교회의 계보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성과의 하나는 의학 연구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유타 대학 메디칼 센터와 유타 암 협회 및 유타주 보건부의 만성병 퇴치국의 연구진들은 계보 협회 도서관에 있는 4대 프로그램 기록철을 활용하여, 유전적으로 동일한 질병을 앓은 가족들 즉,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질병에 더 많이 걸렸는지를 조사해 내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수많은 근면한 교회 회원들이 가계도를 작성하여 의료 연구진들을 위한 첫째 단계를 이미 놓아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구진들은 직접 계보 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의학 정보 수집을 집중적으로 행하여 그것을 컴퓨터에 넣어 분석하고, 이러한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족들을 규명하여 치료할 수 있다.

그 연구진의 한 사람이며, 유타 대학 의과 대학의 내과학 부교수인 로저 알 윌리엄스 형제는 유전 의학은 유타에서 1946년에 어떤 학회에서 근육 영양 실조와 암 연구를 위한 기금을 받았을 때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연구진의 일원인 엘론 가드너 박사는 상당히 높은 암 발병율을 보인 189가족을 연구했다. 어느

유전학 학생이 그에게 폐암을 앓았던 여러 명의 친척 아주머니에 대한 말을 했을 때, 가드너 박사는 계속 추적 연구한 결과 그 가계에서 그 외에도 46명의 여성이 악성 또는 전기 악성 종양을 앓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드너 박사와 그의 의료 연구진들은 다른 가계를 추적하여 결장 암으로부터 치아의 부정 교합 및 상처 조직에 이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유전적 요인을 규명해냈다.

1970년대 초에, 유타 대학 메디칼 센터의 기획 위원회는 인구 유전학자인 마크 스클니크 박사를 초빙하여, 유타에서 행하는 유전학 연구를 조사해 보라고 했다. 스클니크 박사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가족 중심 사회에 깊은 관심이 끌렸으며, 계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또한 유타 대학과 말일성도 병원에서 호머 워너 박사와 그 연구진들이 개발하여, 의학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한 복잡한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도 역시 큰 감명을 받았다.

국립 보건원에서 받은 기금으로 4대 프로그램 기록을 전산화 할 수 있었고 이미 전산화된 유타 암 등록협회의 유

타주 보건부의 사망 증명서 컴퓨터 기록에 연관지을 수 있었다.

이름과 출생 년도만 대면, 컴퓨터에서 30분지 1초안에 750,000명의 기록에서 그 사람을 찾아낸 다음 그 기록이 기입되어 있는 한, 그 가계의 전 후의 다른 가족들도 모두 찾아 내게 된다. 그런 다음 연구진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가계와 의학 자료를 연관시켜 그들 가족에게 공통적인 특별한 질병을 찾아낼 수 있다. 현재까지 컴퓨터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암에 관한 것이 29,747건이며 심장 질환이 41,187건에 달한다.

만성 질병의 경향이 있는 가족 중에서 개인의 주치의에게 자세한 의학 진단을 받도록 종용받는 사람들도 있다.

윌리암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질병에 대한 발병율이 높은 가족으로 규명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히 마련한 설문지를 작성케 하고 그들의 건강 문제에 이상이 있는가를 알아 봅니다. 심장 질환의 발병율이 높은 가족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더 많이 하며, 때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약물을 투여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을 첫 병증세가 나타나기 훨씬 전인 어려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질병에는 신체의 모든 주요 부분에서 발견되는 암, 심장 질환, 뇌일혈, 고혈압, 기타 혈관 질환, 신장염, 동맥 경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개의 연구가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다. 이제까지는 컴퓨터 분석이 유타 거주자에 한정되어 있으나, 더욱 확대되면, 교회에 정확한 4대 프로그램 가족 기록서를 제출한 모든 말일성도를 위해서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많다.

또한 계보 탐구의 일환으로 많은 이점이 나타나게 된다. “추정 연결”이라 불리는 과정은 정보가 불충분한 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이름과 사망일과 부모의 이름이 포함되는 사망 증명서만 있어도 부모의 생일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그 부모가 소속되어 있는 기존 가계에 그 사람을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컴퓨터로 어떤 아동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알아 보려면 같은 이름을 가진 모든 부부를 조사하여 부모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는 숙련된 계보 학자가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서 할 일을 수초 내에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문제점이 있는가? 윌리암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부정확한 가계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점은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인의 전형적인 대가족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질병에 걸리기 쉽게 하는 유전 인자를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점은 ‘물론이 아닌 내 친구들이 특히 인정해 준 친족회입니다. 말일성도 가족은 그들의 친족을 잘 알고 있으며 전체 가족의 건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질병 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협동이 잘 되므로, 연구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 회원들이 건강 연구 면에서 공헌하고 있으므로 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는 이 컴퓨터 사업이 주님의 사업에 유용한 것이 되어 교회 계보과에서 우리가 발견한 결과를 함께 이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새로운 식품 비축 방법 개발

열대 기후 지대에 사는 회원들도 곡식과 콩에 식물성 기름을 입히는 방법으로 식품을 성공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식품 저장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벤슨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는 브리감 영 대학의 식품 영양학과 존 엠 힐 교수는 최근에 콜롬비아의 칼리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그는 식품 비축 문제와 기타 영양 문제를 연구했다.

힐 박사는 아트 반 스쿠호브 박사와 함께 국제 열대 농업 센터에서 식용유를 사용한 곡류와 콩 저장 방법에 대하여 연구했다.

힐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국제 열대 농업 센터에서 하는 일은 벌레를 막기 위한 콩과 곡류의 기름 처리를 개개인이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구에서 일한 반 스쿠호브 박사도 콩이나 곡식은 식물성 식용유로 처리하면 곡식에 있는 벌레도 죽고 앞으로도 감염되지 않게 방지해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트리글리세린과 올레인 산이 벌레를 죽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힐 박사는 말한다. “그러나 벌레가 죽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릅니다. 처음에는, 곤충이 질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더 깊이 연구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름속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가 곤충의 신진대사 과정을 차단시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으로

처리한 곡식은 재감염되지 않습니다.”

힐 박사는 계속 설명한다. “이 말은 식물성 기름으로 처리한 곡식은 곤충 즉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훈제하거나 건조 또는 냉동 및 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며 어떠한 종류의 식물성 기름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벌레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는 열대 지방에서의 식품 저장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물론 어떠한 기후에서든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

식물성 기름은 어떤 종류든(낙화생유, 면실유 등) 저장용으로 곡식이나 콩을 처리하는 데 효과가 있다. 곡식이나 콩을 뚜껑이 달린 용기에 넣는다. 그런 다음에 기름을 넣고, 뚜껑을 덮어 기름이 곡식에 골고루 묻도록 흔들어 준다. 기름이 곡식의 속까지 배어들게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에 묻혀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 곡식이나 콩을 저장 용기에 담아 놓는다. 기름은 섬유에 배어 들므로 저장 용기가 섬유질로 된 것은 피해야 한다. 단단한 용기를 사용하여 곡식에 습기가 차지 않게 해야 한다. 기름은 고약한 냄새가 나기는 하나 기름을 입히는 것은 아주 소량이므로 곡식이나 콩의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름은 곡식이나 콩에 들어있는 곤충을 죽이고,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한다.

이 방법은 특히 열대 지방과 콩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권장할 만한 것이다. 예를 들면, 파메말라에서는 콩값이 추수기가 되면 크게 떨어진다. 가족이 추수기에 일년치의 콩을 사들여 기름으로 처리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콩값이 오를 때에 먹게 되면 일년에 식비의 3분의 2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

브루스 알 맥킴기 장로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했으며,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며, 그의 언행(위대하고 참된 예언을 말하는 것을 포함함)은 다른 시대의 다른 선지자에 의하여 “미친 것”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벧후 2: 15-16참조)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극적인 것이며 교회의 모든 회원을 위한 위대한 교훈이 담겨있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를 받고, 복수의 검을 쥐고 있던 멸망의 천사를 대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계 역사에서 다시는 중복되지 않은 방법으로 주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건을 살펴 보고, 이

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보도록 합시다. 왜 주님은 이상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허락(또는 지시)하셨는가? “불의의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며 가장 놀라운 메시아의 예언을 포함한 위대한 진리를 외칠 수 있는가?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주님의 고대의 대변자가 보여 준 선하고 악한 행위를 상호 혼합한 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 마음을 탁 터 놓고 그 교훈을 찾아 보도록 합시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내가 이제 까지 또는 앞으로 인용하는 구절을 말일의 경전에서 인용한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경에서 인용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1451년에 여러고 근처의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것으로, 주요 등장 인물은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땅 출신의 예언자 발람이었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 땅을 휩쓸어 모압 땅 변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과 그들의 왕인 발락의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여호와의 공약을 받아 완전히 패망되었을까요?

발람은 그 나라의 장로와 귀족들의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민 22:7) 발람에게 보내 그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발락의 이름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 데 그들이 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 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흑처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이니라”(민수기 22:5,6)

그들이 그에게 내민 재물이 탐이 난 발람은 그들에게 그 날 밤을 그와 함께 유숙하면 그 동안 그가 주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허락을 구해 보겠노라고 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22:9) 이르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민 22:12)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자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민 22:13)



그래서 발락은 첫 번째보다 더 높은 귀족을 더 많이 보내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십분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는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찌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민수기 22:16-18)

그러나, 아직도 왕이 내민 재물과 명예에 탐이 난 발람은 그의 방문객들을 유숙시키고, 주님에게 그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찌니라.”(민수기 22:20)

이 같은 허락을 받은 후 발람은 “자기가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민 22:21)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주의해 들으십시오. 주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셨으나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민 22 : 22)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갈 때,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민 22 : 23)보았습니다. 잘못된 짐승은 세번씩이나 길에서 벗어났으며, 발람은 발을 담에 비벼 상하게 했고, 발람의 밑에 엎드렸습니다. 화가난 선지자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자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느니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민수기 22 : 27-31)

천사는 발람을 책망하고 충고를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찌니라.”(민 22 : 35)

그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자, 발람은 발람을 높여 존귀케 하겠다고 약속하자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민 22 : 38)

발람은 그 후 제물을 바치고, 방문한 예언자의 요청대로 일곱 단을 쌓고 발



람 역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는 여호와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왕이 주는 명예를 받을 수 있도록 간청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발람은 “여호와께서 흑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민 23 : 3)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민 23 : 4) 그리고 발람에게 이르시는 대로, 그는 모압의 온 왕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 일을 뉘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민수기 23 : 8-10)

발람은 화가 났으나, 발람은 자신의 신의를 충실히 지켜,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민 23 : 12)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체의 과정을 다시 시작해 나갔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끈질기게 간구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지였습니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하고 발람이 말했습니다.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민 23 : 19, 20)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노 하리로다. (민 23 : 23)

그래도 계속 발람이 불평하자, 발람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민. 23 : 26)

아직도 왕이 계속 요구하므로 예언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님께 청을 드리자, 다시 같은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민 24 : 2)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힘과 세력을 예언하고,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찌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벽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어늘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로 막아 존귀케 못하게 하셨도다.”(민수기 24 : 9~11)

그러나, 발람은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가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씀할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가까?”(민수기 24 : 12, 13)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그에게서 떠나지 않아, 발람은 위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민 24 : 17) 이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앞에 울무릎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제 2 : 14)라고 기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안되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서, 발람은 “칼로”(민 31 : 8)살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건은 민수기 22장 23절 24장, 25장, 31장, 8절, 베드로후서 2

장 15-16절, 유다서 11절, 및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늘에서 주께서 지시하는 것만을 전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취해야 할 길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조금도 의심의 품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대변하므로 금은 보화가 가득한 집이나 왕이 주는 높은 명예조차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의 확고한 길을 그에게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에 대한 욕망과 명예욕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미 예언의 힘은 자기의 것이 되었으니, 그 위에 부와 권세를 더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그의 표준을 타협하여 복음에 대한 간증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부와 권세도 얼마간 갖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는 물론 복음이 진실함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왜 그는 왕이 내어 주는 것을 거절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들 중에도 교회에서 지시를 받은 후 발람과 같이 세상적인 보상을 탐하여 그대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거나 이러 저러한 사회적 명예를 원한다면 이런 행위를 하여도, 그대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는 유혹을 결국은 받아들이는 수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일이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한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이익과 반대되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때는 확고한 간증을 가졌으나, 지금은 돈이나

권세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주님의 목적에 반대하고 지상의 것을 좇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언자 발람도 한때는 영성이 풍부하고 강한 사람이었으나, 영원의 재물 보다는 그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잃은 것입니다.

간증은 갖고 있으나, 이 세상의 것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셉 스미스가 들려주는 영감의 말씀은 참으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

“보라, 저는 깨닫기 전에 홀로 있게 되어 가시를 걸어차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는도다...

“이러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교리와 성약 121 : 34-38, 40) *



부끄러워하지 않고 문제에 대처함

테리 제이 모이어

존 셀린저는 독서 자료 목록 뒷면에 그 숙제의 자세한 내용을 부지런히 적었다. 세계의 기아 문제에 대하여 3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5일까지 제출, 독서자료 목록의 이용 등.

종이 울리자, 존은 식당으로 갔다.

함께 식사하는 물론 학생들이 늘 자리잡는 식탁에 앉자, 존이 질문했다. “퍼킨스 선생님이 오늘 너희 반에서도 인구와 기아 문제에 대한 숙제를 내 주셨니?”

곧 존의 행정 시간에서만 그 숙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카미오 카무라의 경제 시간과 줄리의 역사 시간에도 그 숙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됐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어떤 선생님께서로부터든지 매 학기에 적어도 한번씩은 비슷한 숙제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인구 증가에 대한 것이 아니면, 유산이나, 세계의 기아 문제 등 그런 것이지.” 하고 리사가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독서 목록에 있는 자료를 보면 네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될지 환하게 알 수 있어. ‘세계는 인구가 너무 많다. 누구도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안된다. 인구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유산 축적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식량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난 그런 걸 하 나도 믿을 수 없어!”라고 줄리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하고 존이 말했다. “나는 퍼킨스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숙제로 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선생님들 중에도 교회의 가르침과 의견이 일치하는 분이 많이 계셔.”

“그렇거야. 존? 리사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의견이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숙제를 어떻게 하지?”

이 학생들은 몇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했다. 선생님들의 의견이 교회 정책과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및 경전과 같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

“물간 선생님께 여쭙어 보기로 하자. 하고 존이 말했다. “그 선생님은 이 학교에도 오랫동안 계셨고, 오래 전부터 감독님과 신학원 중등부 교사직을 맡아 오셨잖아.”

“너희들이 그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하고 물간 감독은 말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한대로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걸. 너희들은 퍼킨스 선생님이 내주신 참고 문헌을 읽고 그 책의 저

자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지. 나는 너희들이 다른 책을 읽고 연구해 본 결과에 따라 다른 견해를 말하고,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교회의 가르침을 뒷받침해 주는 책이나 기사도 있습니까?”하고 리사가 말했다.

“물론 그렇지.”하고 물간 감독이 대답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지. 같은 자료를 연구하는 정직하고 진지한 연구가들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각기 그들의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기사나 책을 발행하게 되는 거지.

“어떤 과학자들은 인구가 40억명이 되면 이 세계가 꽉 찼다고 확신하는가 하면, 이 지구위에는 40억 또는 50억 또는 100억명의 인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다.

“사회학자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복잡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더 크게 날 수 있지.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상당히 엇갈리는 견해가 나오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 해답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이지.

“말일성도인 우리는 그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는 진리를 계시받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며, 우리는 그 점을 감사해야 하지, 말일성도와 그 이외의 많은 연구가들은 주님이 계시하신 것과 일치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여러분의 문제점은 단순히 이러한 기록을 찾아내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이 숙제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후 3주일 동안 존과 줄리와 카미

오는 열심히 연구했다. 그들은 함께 퍼킨스 선생님이 제시한 참고 서적을 자세히 읽어 보고 학교와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여 더 깊이 알아 보았다.

그들은 여러 사회 단체와 행정 기관에도 둘러 여러가지 유용한 자료와 책자와 통계 자료도 구해 보았다.

존과 줄리와 카미오는 교회의 견해를 나타내는 논문을 제출하여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들은 각기 자기 반에서 그들이 알아낸 것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들은 자기의 신조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완전히 갖추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은 어려운 도덕적 문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에 도움이 되는 훌륭하고 타당한 논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 큰 수확이었다. 그들은 또한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그들이 가르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해도, 치밀하게 연구하여 훌륭한 논문을 제출하는 학생들은 존중하는 분도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출처가 어디서 나온 것이든 항상 진리와 일치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어느 소녀가 한 일

1975년에 자넷 그리핀스가 10학년 이었을 때였다. 인구 증가에 관한 논문을 쓰는 숙제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은 “진실로 살아있다.”라는 필름스 트립과 테이프를 만들어 제출하게 되었다.

현재 유타 벨 바다 스테이크의 바운티풀의 회원인 자넷과 부친 글렌 그리핀스 박사는 가족 사진을 뒤져서 재미있는 사진을 몇장 뽑았다. 그 슬라이드를 자넷과 그녀의 부친이 쓴 낙태 반대론에 연결시켰다. 다 완성한 후 슬라



이드를 보는 자리에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열렬한 감체를 받았다. 그 후 여기 저기 손질을 가하고 수정했다. 사운드 트랙으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도 되었다. 그 필름스트립을 본 어떤 사람은 모든 말일성도 청소년에게 “진실로 살아있다”를 보라고 권했다.

그 후 다시 여러 모로 수정 보완되어 17개 국어로 번역되어 각국의 교회에 분배되었다.

여러분이라면?

모질 :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이웃에게 봉사하고 노벨상까지도 탈 수 있는 총명하고 젊은 말일성도.

1. 쥐를 잡는 방법 연구.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는 식품 공급량을 25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한 기술이어야 한다.

2. 바닷물을 저렴한 경비로 경수로 바꾸는 방법 연구. 그러면 바닷가 가까이 있는 많은 사막을 비옥한 농지로 바꿀 수 있다. 힌트 : 태양력.

3. 작은 농가에 알맞은 농기구를 포함하여, 많은 지역의 많은 농부들이 사

용할 수 있는 트랙터와 농기구 제작 방법 연구.

4. 저개발 지역에서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 연구. 그렇게 되면 낭비를 줄여 수백만의 인구를 더 먹일 수 있다.

5. 한번 사용하면 그만인 에너지원의 대체 방안으로 모든 지역에서 값싸게 태양력을 이용하는 방안 연구.

6. 저렴하고 영양가있는 해양 식품원을 널리 이용하는 방안 연구.

젊은 말일성도는 대기 중에서 관개 용수를 이끌어 내거나, 대체 에너지원의 발견, 추수나 식품의 생산, 포장, 분배 개선 연구, 사막의 농지화, 북극이나 남극의 습기 이용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연구로 상을 받을 수도 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명하고 패기만만한 시온의 젊은이라면, 우울한 한탄만 늘어 놓는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해결책을 찾는 무리에 속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부모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이

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능력이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하고 주님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솔 2: 28-29)

해답은 거기에 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위대한 발견은 열심히 일하고 수많은 실패가 있는 뒤에 나오는 것이다. 때로는 그렇게 하여 영감을 받은 것이 그만큼 인식되지 못할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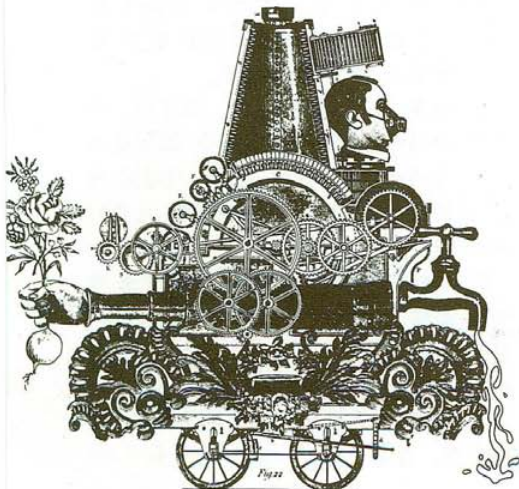
1950년에 제임스 왓츠가 증기 기관을 발명한 이후로 급속한 변화가 오게 될 줄을 과연 누가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1970년에 그 이후의 100년 동안에 전기로 어떤 일을 할지 과연 누가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또 1957년에 처음으로 인공 위성을 쏘아올린지 겨우 12년 밖에 지나지 않아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겨 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현명하고 젊은 말일성도 한 명을 들어 보기로 하자. 훌륭한 교육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심한 탐구하는 정신을 준다.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갖춘 겸손히 기도하는 태도를 준다. 그런 젊은이라면 수백만의 인간에게 식량을 대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굶주림이 있는 이유는?

질문: 세상에는 인구가 얼마나 있는가?

답: 이 세계 40억의 모든 인구를 5인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5인 그룹은 미국에서 거의 1헥타아르(10,000평방 미



터)의 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캐나다와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는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및 세계의 여러 섬들도 텅 비게 될 것이다. 세계의 인구가 불합리하게 분포되어 그런 것인데, 그래도 세계 인구가 넘친다는 것인가? 세계 인구는 40억명이며, 미국의 면적은 9,399,317평방 킬로 미터이다. 1평방 킬로 미터는 100헥타아르에 해당된다.)

질문: 세계의 인구가 먹을 양식은 있는가?

답: 여러 해에 걸쳐 식량 생산은 인구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왔다.

질문: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굶주리는 곳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1. 식품의 분배가 곳에 따라서는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비능률적이다.
2. 현재 추수하는 기술로서는 많은 식량이 땅에 버려진다. (기계 경작으로 어떤 곡물은 약 25퍼센트가 밭에 그대로 버려지게 된다. 인건비가 비싸므로, 떨어지는 것을 거두어 들이기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버려지게 되는 것은 잘 익지 않은 것, 너무 익은 것, 기계가 움직일 수 없는 구석진 곳에 있는 것 등이다.)
3. 빈약한 식품 포장과 저장으로 인하여 많은 식품이 손실된다.
4. 쥐가 상당한 양의 식품을 먹어 치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1977년 7월호, 63페이지에는 "인도에서는 4,800킬로 미터에 달하는 차량에 가득 실은 곡물을 쥐가 먹어 없앤다."고 나와 있다)

5. 비능률적인 농업 기술로는 경지 면적당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원품을 그대로 생산해 내지 못한다.

6. 식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땅이 담배, 아편 및 알콜 음료의 주성분을 생산해 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7. 어떤 지역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때로는 의도적이 아닌 경우도 있다.) 농부들이 식품을 더 적게 생산하게 권하고 있다.

8. 어떤 지역에서는 1킬로그램의 동물성 단백질 얻기 위해 많은 킬로그램의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나?

세계의 인류가 스스로 성취하도록 도와 주는 일이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재단의 주요 사업이다. 3년 전에 조직되어, 델로 엘스워드 박사가 이끄는 이 재단은 식품과 영양, 농업 및 식품 저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다.

작은 경지 면적에서도 식품을 재배하는 법, 열대 기후에서의 식품 저장 방법, 여러 종류의 식품을 가정에 비축하는 법, 더 많은 식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원예 방법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타 다른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엘스워드 박사는 교회의 회원들도 기아에 허덕이는 세계에 식품을 대주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2,000명 이상의 말일성도로 이루어진 식품과 농업 관계 과학자들의 명단을 제시했다. 실로 교회와 그 성도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

부친의 신조

헨리 아이어링



다음 기사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유타 대학의 화학 교수이며 과학 진흥 협회의 전직 회장이며, 수많은 과학상을 수여받은 헨리 아이어링 박사의 연설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내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은 시험의 교리입니다. 구세주는 교리가 참되어, “하나님께서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요 7:17) 알아 보려면 그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학의 핵심이요, 또한 실험과 시험과 증명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과학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에서 우리

는 과학자인 동시에 말일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한다 해서 과히 신경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헨리, 저 사람 좀 보세요, 그 사람은 자네 교회의 회원이라네. 아주 어수선한 모습이네.” 나도 그 말에는 동의했으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나마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게.”

복음이라고 해서 돼지 가족으로 비단 지갑을 만들 수는 없으나, 복음은 거기에 따라 생활하기만 하면 누구나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나는 그것을 시험해 보았으며, 그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내 견해로는, 계시된 종교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자비로우시며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할 때 나는 그가 무슨 의미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필경 그는 내가 그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거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훌륭한 논리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논리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중세기에는 세상이 평평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논리적인 것이었으며, 그 논리가 완전한 것일지라도, 그들은 그릇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결론은 옳지 못했습니다.

요점은 종교나, 과학이나, 정말로 문제가 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올바른 가정만이 믿을 만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품고 있는 신념으로,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실험 및 다른 사람의 경험과 실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념 또는 가정을 논해 보라는 청을 받는다면, 나는 이런 면에서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우주에 지고의 예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나는 그것이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과 요셉 스미스에게

일어났던 일과, 매일처럼 발견되는 신비한 과학적인 법칙을 토대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나?”라는 질문을 혼자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경우에 대처해 나갑니다.

나는 내가 예배드리는 지고의 예지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나의 가장 깊숙이 자리잡은 생각까지도 헤아려 알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는 하나님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와 반대로, 공의와 자비를 겸하신 하나님께서 죽음 후의 생에서 모든 부정을 바로 잡으실 것이며 또 그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과학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정신 자세와 증명하고 시험하는 방법을 꼭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는 개인적인 역사를 몇가지 돌이켜 보고 싶습니다. 때는 1919년 9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아리조나주의 피아에서 하루 종일 건초더미를 끌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더워 우리는 불을 많이 마셨습니다. 나는 월요일에는 광산 공학을 연구하게 되어 있는 아리조나 대학에 강의를 받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저녁 때 부친께서는, 흔히 부친들이 그러하듯이, 아들과 작별의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부친은 내가 항상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하셨습니다. 부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헨리야, 이리 와서 앉

아라, 너와 이야기하고 싶구나.”

사실, 그것은 전초를 굵어 모으는 것 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친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지, 안 그러냐?”

“에”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헨리야, 우리는 함께 언덕에서 말도 하고 같이 농사도 지었지.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있어. 네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나는 주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의 교회를 회복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며, 아무런 의심도 없다. 세상에는 내가 확실히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 것도 믿지 않아도 된다. 네가 아리조나 대학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배우도록 해라. 무엇이든 참된 것은 복음의 일부가 되는거야. 주님은 실제로 이 우주를 주관하신다. 나는 주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주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가 대학에 가더라도 불경스럽게 되지 않고, 좋은 친구들과 벗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교회에 나가며, 우리가 이제까지 해 온 것과 같이 행동한다면, 네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조금도 안하겠다.”

그것은 약 6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든 해답을 구하지는 못했으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 계시어, 성도들의 박해자 중에서 바울을 택하시어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로 하셨고, 그를 활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같은 일을 시키셨을까요? 그 한가지 이유는 요셉 스미스에게는 남다른 듣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나 현명하여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복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의 훌륭한 특성 중의 하나는 그들이 겸허하게 귀기울이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활용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귀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기도하며 주님께 겸손히 나아간다면, 그는 우리의 예지에 직접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권고하신대로 시험해 보면, 여러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계시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므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려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 한계로 인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우리가 귀기울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세주의 말씀을 시험해 보고, 과학자가 행하여 이론을 성립하는 것처럼 행하고, 가정하고, 재어 보며, 그것을 가정과 비

교하여 참된 것에 관한 결론을 내리도록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 복음이 참되며, 그의 자녀를 보살피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말씀해 주시는

지고의 예지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통해 많은 위인들이 믿어 왔으며, 언제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



